

포장지원시스템 구축, 국가 핵심전략으로 발전 선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마련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1989년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국내 최고 실용화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특히 실용화 성공률, 중소기업 지원 건수와 규모, 국제공동연구 비율, 생산기술 노하우와 경영 자립도 면에서 국내 최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미국 Boston University MBA 과정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AMP 과정을 수료하고 선경인더스트리 연구소장과 SK-UCB 대표이사, SK Chemical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장, 삼성종합기술원 CRO(Chief Research Officer),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사무총장 등으로 재직한 김기협 연구원장을 필두로 발전하고 있다.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는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거쳐 지난 1994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재직 중인 조계민 센터장을 포함, 지난 해 10월 설립된 이후, 현재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협 원장은 “2006년 10월 설립된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방향 설정, 공동장비 구축,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포장산업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제품을 창출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포장분야 원천기술과 핵

심기술(공통핵심과제)을 응용한 실용화기술(사업화 과제)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국내 포장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술 수준 파악하고 자료 공유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포장산업의 정책개발 및 R&D 총괄관리, 시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포장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그동안, 기술개발 지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포장개발연구원, 그리고 인력양성은 (사)한국포장협회가 담당하는 등 지원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산업이 갖는 업제적, 학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 특히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한시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포장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집중화와 효율적인 정부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지원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국내 포장산업의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

김기협 원장은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포장산업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기관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국내 포장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포장장비 구축, 인력양성 등 중장기적 사업 수행을 통해 포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포장’이라는 단어가 제품 포장기술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얼마 전 포장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공고가 나간 후 건설회사의 한 간부가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센터의 역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포장’이라는 용어만 듣고 도로포장을 생각했던 것이죠. 제품 포장기술에 대한 산업적 위상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국내 포장산업은 부가가치와 업체수 및 고용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포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김기협 원장은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체계적인 정부 지원시스템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학·연·관이 함께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차세대 핵심 분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포장업체의 자생력 확보에도 공을 들여 지속적인 포장기술 개발에 의한 제품 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잇는 한편 선진국의 각종 무역 및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도 힘을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라는 포부 아래, 기술 한국을 선도하는 길잡이로서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또한 새로운 산업전략을 창출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의 포장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관련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노력이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하는 김기협 원장. 이제 걸음마를 떼고 전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역사는 짧지만 목표는 창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센터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